



고창군 심원면 만들마을이 전북도에서 주관한 '2017년도 어촌 이야기 길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어촌 이야기 공모사업 선정

고창군 심원면 만들마을을 문화자원·생태캠핑존 등 관광기반시설 조성 계획

고창군(박우정 군수) 심원면 만들마을이 전북도에서 주관한 '2017년도 어촌 이야기 길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비 2억5000만원 등 총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한 만들마을 어촌이야기길 조성사업은 마을의 전설, 유래, 이야기 등 문화자원과 해안경관, 갯벌생태계 등을 활용해 계명산에 닭을 전파해, 대형조개포도존, 솔숲(방풍림) 조명, 용궁풍차, 생태캠핑존 등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어촌 이야기 길 조성은 정채원 어촌에 불거리, 들거리, 짝거리 등 이야기를 입혀 차별화된 관광, 레저, 여가공간 조성 등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광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확보를 통해 어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수산생물 상징조형물, 랜드마크, 전망대 및 캐릭터 포토존 설치, 마을벽화, 설화와 전설 등 흥미로운 어촌 이야기를 마을에 입히게 된다.

조성사업을 통해 어촌지역에 존재하는 전설, 설화 등 잠재자원과 어촌 생활공간 특성을 반영한 어촌 고유의 스토리텔링을 시각화해 차별화된 국민의 관광, 레저, 여가공간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만들마을은 세계적으로 보전가치

를 인정받은 랍사르 습지와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으로 도내 유일의 고품질 전통 지주식 재래 김 생산지역이며, 매년 전국적인 규모의 갯벌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갯벌생태관광지로 도시-어촌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다양하고 독특한 어촌문화가 잘 보존된 곳이다.

박우정 군수는 "보고, 듣고, 사진도 찍으며 어촌문화를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이번 어촌이야기길 조성사업으로 한 단계 발전한 어촌관광산업을 도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역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촌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시책 제안·발굴 보고회 가져

버스노선 운영시스템 도입·도통 1호 공원 주차장 조성 등

남원시는 지난 26일과 28일 이환주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 과, 소장,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시책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시책발굴 보고회는 실·과·소에서 제안한 시책 뿐 아니라 일선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읍면동에서도 시책을 제안하여 시책 발굴의 다양성을 기하였다.

특히, 소규모 예산으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과 정부 정책 방향과 우리시 여건에 부합한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었다.

총 135건의 시책이 제안되었고, 주

요사업으로는 시민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비 지원사업,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사업,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구축, 수요대응형 버스노선 운영시스템 도입 등이 있고,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공원(구역사) 조성, 덕음산 오감민족 숲 조성, 도통 1호 공원 주차장 조성 등이 제안되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제안된 읍면동에서는 해바라기로 아름다운 중동마을 가꾸기, 찾아가는 경로당 핸드폰 데이, 나홀로 어르신 행복드림사업 운영 등 지역 어르신 돌봄 서비스와 깨끗

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이 제안되었다.

이환주 시장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사고를 통해 알찬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시책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사명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 등 최종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시책사업들에 대해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예방접종 나서

내달 4일부터 만 65세 이상

순창군이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한 예방접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지키기에 나선다.

군은 10월 4일부터 관내 12개소 병원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창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0월 4일부터 관내 대동의원, 류재규내과의원, 문희식내과의

원, 순창요양병원, 희망병원, 이상희 재활의학과의원, 참조은내과의원, 최선영내과의원, 한국의원, 동계농리의원, 쌍치의원, 구림우리의원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단 순창군에 주소지가 없는 사람들은 연령별 접종구간에 해당사항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660-5213 번으로 접종일자를 알아봐야 한다.

한편 순창군 보건의료원은 관내 위탁의료기관보다 하루 늦은 10월 5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며 만

65세 어르신 및 의료급여 1~2급 수급자, 장애인 1~3급 및 다문화 가정 3세 이하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영근 순창군 보건의료원 원장은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어르신들의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질병부담비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어르신들이 꼭 예방접종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의용소방대연합회, 임실군에 백미 100포 기탁

전라북도 의용소방대연합회는 28일 백미 10kg 100포를(250만원 상당)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임실군에 기탁했다.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이날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본 행사를 마치고

백미를 기탁했으며, 군은 12개 읍·면 저소득계층 100가구를 선정해 전달할 방침이다.

정용석 임실군 의용소방연합회장은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 건설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15개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는 28일 임실공설운동장에서 기관단체장, 의용소방대원 및 가족, 소방공무원 등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지정환 신부, 주민행복분야 대통령 표창

지역희망박람회서 박대통령 친서 전달

임실치즈의 아버지이며 대한민국 치즈의 산 증인인 지정환 신부(벨기에, 본명 디디에 세스테벤스)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16년 지역산업 진흥유공 주민행복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2016 지역희망박람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됐다. 이날 수상한 지정환 신부는 "나

는 임실 지세를 가진 임실 사람이다"며, "임실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게 화합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치즈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정환 신부가 남겨준 협동과 공동의 정신을 실천하겠다"며 "앞으로도 치즈산업의 이익이 국민 다수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순창군, 경로당 조명시설 LED 교체

369개소 한결 밝고 편해질 전망

순창군이 어르신들의 주 생활공간인 관내 모든 경로당 369개소 조명시설을 LED로 교체해 어르신들의 생활이 한결 밝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군은 어르신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인 경로당 조명시설이 형광등, 백열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시력이 좋지 않은 노인들이 생활하기 불편하고 전력 소비도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전면 교체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사업에 총 2억 7백만원을 투자하며 최근 생치·북흥면을 시작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 사업도 최대한 빨리 추진한다. 금과·팔덕면은 9월까지, 순창·인계·풍산·구림면은 10월까지, 동계·적성·유등면은 11월 말까지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사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 남원순

창지사와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의 생활에서 직접 느끼는 조명 문제를 해결해 편리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에너지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LED 조명등은 기존 형광등 대비 150%의 에너지 효율성을 가진다.

군은 이번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연간 44%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LED조명 교체사업 이외에도 올해 경로당 18개소에 방난방기기를 보급하고 20개 경로당에 물리치료를 보급했다.

또 5개 경로당에 도시가스 설비 지원과 7천만원을 투자해 50개 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등 어르신들의 주 생활공간인 경로당을 최대한 편안하고 편리하게 바꾸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김영식 인계면 주민생활 민원 계장 퇴임식 열려

김영식 인계면 주민생활 민원 계장의 퇴임식이 28일 인계면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퇴임식에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한 인계면 기관장 직원과 주민들이 참석해 김영식 계장의 퇴임을 아쉬워했다.

오는 30일로 공직기강을 마무리하는 김영식계장은 1978년 순창군 지방

공무원으로 임용돼 북흥면, 지역경제와 교통행정 계장 등을 거쳤으며 37년 공직생활을 성실한 자세로 일해온 공무원으로 정평이 나왔다.

부인 서경순씨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김영식 계장은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변에서 힘이 되어준 가족과 직장동료들에게 감사하다"면서 "비록 몸은 퇴임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순창발전과 직원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퇴임 소감을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멜론,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 선정

'2016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에 선정된 고창멜론이 국내뿐 아니라 홍콩시장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28일 고창군(군수 박우정)에 따르면 '고창멜론'은 지난날 말부터 2차에 걸쳐 홍콩시장에 첫발을 디딘 이후 뛰어난 맛과 향으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아 전체 수출물량을 소진해 추가 구매를 요청받는 등 인기아가 뜨겁다.

군은 최근 고창멜론의 홍콩시장 홍보와 판촉을 위해 관계공무원과 고창 황도멜론연구회 임원진 7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홍콩에 파견하고, 홍콩의 대표적 과일시장인 야우마테이(Yau Ma Tei), 유명 백화점, 할인마트 등을

방문해 고창멜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동향 등을 조사했다.

또한 홍콩 방문기간 중 지난 23일 홍콩의 대표적 무역회사인 '린슨 트레이딩(Linson Trading)'과 고창군농업기술센터가 고창 농산물의 지속적인 판매와 홍보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식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홍콩시장에서 고창 농산물의 수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경열 황도멜론연구회회장은 "홍콩시장에 일본산이 많이 진출해 있지만 고창멜론은 맛과 향 등 품질에 뒤떨어지지 않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판촉을 통해 우수성을 홍보해 나갈 것"이라며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역특이점

남원시, 낭만과 추억의 거리 조성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낭만의 거리를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힐링장소를 제공한다.

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45일간 동림교에서 노암동주민센터를 오가는 1.5km 구간을 느티나무 낙엽이 펄펄 날리는 낭만의 거리를 조성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낭만의 거리를 조성, 운영하여 주변에 있는 요천 산책길과 함께 흐드러진 낙엽을 밟아보면 깊어가는 가을의 운치를 흠뻑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낭만의 거리는 가족에게는 옛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연인들에게는 사랑을 속삭이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한 낭만의 거리가 남원 관광지와 지리산 단풍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에게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남원시 환경과장은 "청소할 때 낙엽은 그대로 두어 이웃을 찾는 이용자에게 가을의 정취와 낭만을 제공하여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결을 때 낙엽으로 인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인공수정 실습교육 실시

임실군은 지난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농업인대학 한우반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한우개량에 위한 인공수정 실습교육을 개최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전북도 동물위생연구소 축산시험장(진안 소재)과 협력해 이론 교육을 벗어나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인공수정 기술을 체득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2기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한우 암소 생식기 견본, 실습용 한우 등을 통해 직장검사 및 인공수정을 실습하고, 2기 교육은 내달 12일,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한우농가의 인공수정 기술 습득은 농가가 원하는 소를 만드는 한우개량에 목적이 있다"며,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1년 과정 교육인 농업인 대학을 복층어반, 한우반 총 2개 과정으로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임실=진흥영 기자

고창군, 행복한 나눔 기법 행사

고창군(군수 박우정)에서 지역 사회복지인 화합과 소통을 위한 '제13회 고창군 사회복지인 한마음 축제, 행복한 나눔 기법 행사'가 개최됐다.

28일 고창군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행사는 박우정 고창군수, 최인규 군의장, 이호근·장명식 도의원, 군의원과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통한 기부식품 제공 관련 주요업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후원자, 자원봉사자, 홀로 어르신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 모범직원표창, 사회복지인 역량강화교육과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사회복지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날 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와 고창 푸드뱅크, 푸드마켓이 연계해 희망 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박우정 군수는 "복지의 최일선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인들이 복지증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권익신장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006년 2월에 창립해 사회복지사의 권익과 처우개선, 지역 내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